

No.20170510-001

제목: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저자: 쿠보 미스미

페이지수: 368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3월 24일



<내용소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잊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여자의 연애

사랑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성이 마비된 듯 통제할 수 없는 불 같은 사랑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안고 가는 사랑도, 언제인지 모르게 시작되어 점점 깊어지는 사랑도 있다. 쿠보 미스미의 신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는 세 번째에 가깝다. 큰 아픔을 겪은 후 감정 일부가 결여된 삶에도,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삶에도 변화의 순간은 온다.

가구를 만드는 남자 '이치하루'는 매년 12월이 되면 며칠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고등학생 시절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다. 사랑했던 여자의 죽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후부터 특정 시기가 되면 증상이 나타났다. 본인은 원인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털어놓은 적은 없다. 어쩌다 한 번씩 하룻밤을 보낼 상대를 찾기는 해도 누군가와 정식으로 교제할 생각도 없다. 어느 날, 이치하루는 대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사쿠라코'라는 여자를 알게 된다. 둘은 32살 동갑내기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잔뜩 취한 사쿠라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우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잠시 스쳐가는 사이로 끝나는 듯 했지만, 며칠 후 두 사람은 일 때문에 재회하게 된다. 사쿠라코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치하루를 보며, 혹시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한편, 사쿠라코는 학생시절부터 연애와는 거리가 멀었다. 남자와 어떻게 사귀고 연애를 하는지 잘 모른다. 여동생이 속도위반으로 결혼해 일찍 집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사쿠라코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라 할 수도 없다. 이처럼 다른 괴로움을 안고 있는 남녀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알게 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서히 변해간다. 이치하루가 정성 들여 만든 의자는 사쿠라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매료시킨다. 사쿠라코 역시 과거의 잔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치하루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간다.

이치하루와 사쿠라코의 시점을 오가며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인물 내면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갈 수 있다.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그렸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아직 한참 서툰 두 남녀를 통해 인간의 따뜻함, 약함, 질투, 오만함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 주례사에 자주 등장하

는 이 문장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계속 변해가는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쿠보 미스미

1965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광고제작회사와 프리랜서 편집자를 거쳐, 2009년 <미쿠마리>로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R-18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수상작을 수록한 《한심한 나는 하늘을 보았다》가 인기를 얻고 2011년에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되었다. 2012년 《길 잃은 고래가 있는 저녁》으로 야마다 후타로 상을 받았다.

No.20170510-002

제목: 나도 고양이로소이다

저자: 아카가와 지로, 아라이 모토코, 이시다 이라, 온다 리쿠 외 4인

페이지수: 211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28일



<내용소개>

나쓰메 소세키 탄생 150주년 &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며 8인의 작가가 펴낸 단편소설집

“나는 고양이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나쓰메 소세키가 1905년 발표한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도입부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사회를 냉소적이고 유머 있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로, 짧지만 인상적인 첫 문장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2016년은 일본의 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탄생 150주년 및 사망 100주년이었다. 그리고 8명의 현대소설작가가 모여 이를 기리는 단편소설 작품집을 발표하였다. 제목 또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오마주한 《나도 고양이로소이다》이다.

참여한 작가들의 경력이 화려하다. ‘아카가와 지로’는 미스터리&추리 시리즈를 즐겨 쓰는 작가로, 다수의 히트작을 배출하며 베스트셀러 제조기로 불렸다. 끊임없이 집필활동 덕분에 발표한 작품만 500 여편에 달한다. 추리에서 로맨스까지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시다 이라’는 한국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작가다. 155 회 나오키 상 수상자 ‘오가와라 히로시’와 156 회 나오키 상 수상자인 ‘온다 리쿠’도 참여했다. 그 외에도 미술품 미스터리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하라다 마하’, 라이트노벨 분야의 개척자로 인정받는 ‘아라이 모토코’, 상처받은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점이 인상적인 ‘무라야마 유카’, 현대사회 여성의 삶과 성에 초점을 맞추는 ‘야마우치 마리코’ 까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나쓰메 소세키가 다루었던 메이지 시대나 지금이나, 고양이의 눈으로 본 인간들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점으로 가득할 것이다. 총 8 편의 단편소설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화자다. 번덕이 심한 고양이, 매우 똑똑한 고양이,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구하고 사랑하는 고양이, 비밀을 품고 있는 고양이, 대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고양이 등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오가와라 히로시와 하라다 마하의 작품 외에는 모두 암컷 고양이인데,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중반에 수록된 오가와라 히로시의 작품은 만화로 되어있어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작가들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위해 모이는 일은 앞으로도 드물 것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첫 문장과 스토리를 자기 방식대로 변형하면서 본래의 장기를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독서의 묘미다. 독특함과 재미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궁극의 단편소설집으로 추천한다.

<목차소개>

언젠가, 고양이가 된 날 / 소첩은 고양이입니다 / 코코아와 스미레 / 나는 고양이지만 / 측은 함 / 도비우메 / 고양이의 신 / 그녀와의 첫 1년

<저자소개>

아카가와 지로

1948 년 후쿠오카 시에서 태어났다. 1976 년 <유령열차>로 올 요미모노 추리소설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 2016 년 《도쿄영년》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삼색털 고양이 홈즈><세 자매 탐정단>시리즈 등을 비롯해 《세일러복과 기관총》《두 사람》《기념일의 손님》《월광의 유혹》등의 작품이 있다.

아라이 모토코

1960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릿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77 년 <내 안의...>가 제 1 회 기상천외 SF 신인상에 가작으로 당선되며 데뷔하였다. 1981 년 <그린 레퀴엠>, 1982 년 <넵툰>으로 2 년 연속 세이운상 일본단편부문을 수상하였다. 1999 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로 일본 SF 대상을 받았다. 그 외에 《인 더 헤븐》, 《다이어트 이야기... 단, 고양이》등이 있다.

이시다 이라

1960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세이케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1997 년 <이케부쿠로 웨스트게이트 파크>로 올 요미모노 추리소설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03 년 《4TEEN》으로 나오키 상, 2006 년 《잠들지 않는 진주》로 시마세이 연애문학상, 2013 년 《호쿠토-어느 살인자의 회심》으로 중앙공론문예상을 받았다. 그 외에 《1 파운드의 슬픔》《엔젤》 등의 작품이 있다.

오가와라 히로시

1956 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세이조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광고제작회사 근무를 거쳐,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독립하였다. 1997 년 《오로로 공발에서 붙잡아서》로 소설스바루 신인상을 받으며 작가로 데뷔하였다. 2005 년 《내일의 기억》으로 야마모토 슈고로 상, 2016 년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로 나오키 상을 받았다. 기타 작품으로는 《네 번째 빙하기》, 《달 위의 관람차》, 《스트로베리 라이프》, 《신으로부터의 한마디》등이 있다.

온다 리쿠

1964 년 미야기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을 졸업하였다. 1992 년 일본판타지노벨대상의 최종후보작이었던 《여섯 번째 사요코》로 데뷔하였다. 2005 년 《밤의 피크닉》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과 서점대상, 2006 년 《유지니아》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 2007 년 《호텔 정원에서 생긴 일》로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네버랜드》, 《목요조곡》, 《소멸》등의 작품이 있다.

하라다 마하

1962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간사이가쿠인대학 문학부 일본문학과, 와세다대학 제 2 문학부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2005 년 〈카후를 기다리며〉로 일본 러브스토리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 2012 년 《낙원의 캔버스》로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받았다. 《지베르니의 식탁》, 《암막의 게르니카》, 《디트로이트 미술관의 기적》등의 작품이 있다.

무라야마 유카

1964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릿쿄대학을 졸업하였다. 1993 년 《천사의 알(卵)》로 소설스바루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03 년 《별을 담은 배》로 제 129 회 나오키 상, 2009 년 《더블 판타지》로 중앙공론문예상과 시마세이 연애문학상, 시바타 렌자부로 상을 받았다. 그 외 《원더풀 월드》, 《라 비앙 로즈》 등의 작품이 있다.

야마우치 마리코

1980 년 도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2008 년 〈16 세는 섹스의 나이〉로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R-18 문학상 독자상을 수상하였다. 2012 년, 첫 단행본을 펴냈으며 그 외에 《아즈미 하루코는 행방불명》, 《파리에 가 본 적 없어?》, 《도쿄 23 화》, 《쇼핑과 나》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No.20170510-003

제목: 왜 젊은 사원은 '지시를 기다리는 쪽'을 택했을까?: 회사에서의 성장을 포기한 젊은이들

저자: 도요다 요시히로

페이지수: 25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20일



<내용소개>

젊은 세대의 심층심리 분석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부하를 길러내는 방법을 공개한다

채용 시즌이 되면 인사담당자들의 속마음을 담았다는 인터뷰들이 등장한다. 그 중 “요즘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회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항상 나오는 대목이다. 초반에는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후배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쓸 수는 없다. 자리에 앉아 지시만 멍하니 기다리는 신입은,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얼른 한 사람의 몫을 해주길 바라는 선배들은 실망할 것이다. 왜 직장으로 간 청년들은 자기가 할 일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왜 주어진 일보다 조금 더 해서 빠르게 성장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인재채용 회사 '리쿠르트'에서 장기 근무하며 취직 실태를 가까이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왔다. 지금의 윗사람들이 볼 때 젊은 직원들이 지닌 일련의 경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의식수준은 높는데 목표는 언제나 무난한 것들로 정하고, 성실하지만 눈치가 없고, 우수하지만 위험요인은 최대한 피하려 몸을 사린다.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 청년층. 그들을 제대로 된 사회 인재로 육성시킬 방안을 고민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먼저 1장에서는 현재 사회의 상황을 정리한다. 20~30대의 직장 내 행동 및 사고 특성,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본다. 한편, 요즘 일본의 희망직업 1위는 대학교 직원이라고 한다. 야근이 없고 편한 환경에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무원 열풍과 비슷한 맥락이다. 2장은 이 세대가 태어나서 자란 시대적 상황과 직접 겪은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과 같은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3장은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나서는 단계다. 젊은 직원들이 회사 조직 내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미래도 어둡다. 직장 내 변화와 실태를 부각시키며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4장은 매니저 즉 관리자들도, 모순덩어리인 젊은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스스로 버리고,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특별 처방한다.

리더의 역할 중 하나는, 부하에게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능력을 개발 시킬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다. 도통 알 수 없는 젊은 후배들의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한 이 책은, 세대 차가 있는 관리 직급과 젊은 사원들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긍정적이지만 분발하지 않는다 - 젊은 사원의 모순 가득한 실태

제 2장: <신 능력><신 학력>이 가져온 커다란 전환

제 3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위화감>의 정체

제 4장: 매니저를 위한 처방전 - 환경적응성을 끌어내는 <물어보기>의 힘

제 5장: 젊은 사원을 위한 처방전 - <천직 찾기>를 멈추고 밖으로 나가라

<저자소개>

도요다 요시히로

1983 년 도쿄대학 이학부를 졸업하고 '리쿠르트'에 입사하였다. 취직저널, 리쿠르트 북, <Works>의 편집장을 거쳐 현재는 리쿠르트 워크스 연구소 주임 연구소의 주간연구원을 맡고 있다. 20 대의 취업실태, 커리어 가치관, 노동 가치관, 신규졸업자 채용, 취직활동, 대학시절 경험과 학습 등을 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젊은 사원이 성장하지 않는다》, 《취직활동 엘리트의 혼란과 방향》, 《상사 불필요론》 등이 있다.

No.2017051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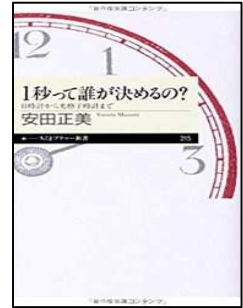
제목: 1초는 누가 정한 것일까?

저자: 야스다 마사미

페이지수: 167

장르: 교양(과학)

출간일: 2014년 06월 14일



<내용소개>

시간 측정의 역사와 최첨단 기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과학 교양서

1년은 열 두 달 365일, 1일 24시간, 1시간 60분, 1분은 다시 60초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시간 기준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시계를 통해 틈틈이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시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시간 및 시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을 숫자로 변환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물리공학을 전공하고 시간계측을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나섰다. 인류 역사에 시간이 등장한 순간, '1시간'과 '1분' 그리고 '1초'라는 길이가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정밀도를 추구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과정을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최초의 시계는 '역(曆)' 즉 해와 달의 움직임을 기준 삼아 시간의 흐름을 재고 체계화한 것이었다. 이것은 수 천 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양력'과 '음력'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원 전 3천년 이집트에서 해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물시계, 11세기경의 모래시계, 12세기경 교회 시계탑에 주로 사용된 기계식 시계로 변신을 거듭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과 시계가 등장하였다. 이후 서양에서는 과학자 갈릴레오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 법칙 덕분에 진자시계의 정밀도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시계의 수준도 함께 발전한 것이다. 시간을 측정하는 일은 천문학에서 물리학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원자시계다. 원자가 내보내는 파장과 공명을 진동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1초를 만들어낸다. 그 중 세슘 원자시계는 오차범위가 3천년에 1초에 불과해 국제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 인류는 한 발 더 나아가, 오차가 137억년에 1초 정도인 '광격자 시계'를 연구 중이다. 저자는 매우 정확한 '광격자 시계'의 구조와 발전 가능성,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함께 소개한다. 항상 곁에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간의 세계로 이끌어줄 유익한 교양서적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시간은 어떻게 측정되어 왔을까 - 시계의 역사

1. 시간이란 무엇일까
2. 역(曆)의 탄생부터 <1초>를 새긴 진자시계까지
3. 쿼츠시계로 기계와 전기가 융합했다
4. <측정기준>을 정의하다

제 2장: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의 최전선 - 광격자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

1. 원자시계의 구조
2. 원자를 붙잡아 시계로 만들다 - 원자 본래의 색을 찾아
3. 마이크로파에서 빛으로
4. 광격자 시계의 구조

제 3장: 시간계측의 정밀도를 구하려면?

1. 광격자 시계 그 후
2. 고정밀도 시계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

<저자소개>

야스다 마사미

1971 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모래시계가 있는 시마네 현 니마초에서 자랐다. 도쿄대학에서 물리공학을 공부하고 1998 년,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예일대학교 박사연구원, 도쿄대학 조수 등을 거쳐 2005 년부터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계측표준연구부문 시간주파수와 파장표준연구실 주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차세대 광주파수 표준인 광격자 시계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No.20170510-005

제목: 33세에 자산 3억 엔이었던 내가 43세에 저금 '제로'가 된 이유

저자: 고토 토키오

페이지수: 236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22일



<내용소개>

돈을 쓰면 쓸수록 다시 돈이 모인다?!

투자에 대한 관점을 바꿔 더 큰 수익을 거두는 비결

기준금리가 19%에 달하던 1980년대에는 저축만 꼬박꼬박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1.25%에 불과하여, 은행에 돈을 맡겨도 예금이자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소득수준의 샐러리맨은 어떻게 자산을 만들어야 할까?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자산=돈'이라는 인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 책의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33세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와 창업 등을 통해 1년 만에 자산 3억 엔을 형성하였다. 그 성공스토리는 책으로 펴내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43세의 나이에 남은 돈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한다. 명확한 의도를 갖고 소비한 결과다. 스스로의 인생을 보다 의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축은 단숨에 수 천만 엔이 되기도 했다가 거의 사라지기도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게 되었다. 저자는 매년 신 사업을 하나씩 시작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 필요한 것은 큰 돈이 들어도 실행하는 생활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돈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미래의 가능성이 더 넓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나의 능력과 앞날에 투자하는 삶.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본인의 체험담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인생을 즐기고 수익을 얻는 삶의 방식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33세 이후 10년 간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한다. 돈을 저축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윤택한 인생이 될지에 대한 고민, 투자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경험이 담겨 있다. 2장에서는 돈을 벌어 의미 있게 쓰는 인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능,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돈을 버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3장은 돈을 쓰는 중심 축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책, 여행, 건강, 주거, 대출 등 세분화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4장에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돈 쓰기 방법을 알려준다. 소비 대상이 사물에서 능력과 기술로 바뀌어야 한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인생 자체를 변동비용화 함으로써, 절약 없이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어떻게 미래의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지 이야기하며 정리한다.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생각하며 풍성해진 두뇌 그 자체를 자산으로 만들어준다. 이 책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본인의 가치와 삶의 즐거움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돈 쓰기 방법'을 실천하면, 수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목차소개>

- 제 1장: 3억을 다 써버린 10년
- 제 2장: 돈을 벌어서 쓰는 인생을 만드는 것
- 제 3장: 돈을 사용하는 중심 축을 가질 것
- 제 4장: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돈 쓰는 방법
- 제 5장: 미래가 열리는 돈 쓰는 방법

<저자소개>

고토 토키오

미국 공인회계사, 경영자.

1971 년생. 쉐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회계사무소, 편의점 체인을 거쳐 29 세에 세계적인 전략 경영컨설팅 회사 'Arthur D. Little'에 합류하였다. 경영컨설턴트로서 IT·정보통신·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전략수립과 기업개혁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한편, 부동산투자를 시작하여 1 년 만에 3 억 엔의 자산을 형성하였다. 2004 년에 독립, 부동산투자 컨설팅과 비즈니스 매칭 사업 등 복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3 세에 자산 3 억 엔을 만든 방법》, 《버려야 할 40 가지 나쁜 습관》, 《계속 일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방법》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No.20170510-006

제목: 디자인 이후에 오는 것: 과잉시대의 서바이벌 전략, '의미의 이노베이션'

저자: 안자이 히로유키, 야에가시 카자루

페이지수: 207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7년 04월 24일



<내용소개>

유럽을 중심으로 부는 새로운 바람, '의미를 바꾸는 전략적 이노베이션'을 설명한다

물건은 점점 팔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출시되어 있는 상품들도 성능 면에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제조 회사명과 강조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를 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남겨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세계의 모든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이다.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미의 이노베이션(혁신)'을 제시한다. 상품과 패키징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 담은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의 로베르토 베르간티 교수가 제창한 디자인 중심의 혁신 개념이다. 그의 저서를 일본에 번역한 디자인 경영 전문가 '야에가시 카자루'와 일본과 유럽을 오가며 활약 중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안자이 히로유키'가, 디자인이 지닌 의미의 이노베이션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

디자인 경영에 대한 기존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싶다는 바람에서 집필된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디자인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것을 높게 평가해 온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를 소개하고, 과거의 유산을 세계화된 현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세계의 디자인이 흘러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2장은 EU의 혁신 프로젝트의 개요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도입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통해 유럽의 동향을 알아본다. 이것은 2010년 EU가 발표한 10년 계획 중 일부다. 3장과 4장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와 역사를 되돌아보고, 십 수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디자인 사고'와 최근 유럽의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디자인 중심 혁신)'을 해설한다. 디자이너의 사고 방식을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디자인 사고'는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이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장점은 취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다. 5장에서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의미의 이노베이션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을 설명한다. 종장은 앞서 다룬 내용들을 보충하면서 디자인의 특성, 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논하며 마무리한다.

최신 트렌드와 이론을 실제 사례를 풍성하게 엮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접근법을 핵심만 뽑아 전한다. 앞으로 취해야 할 경영 혁신의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목차소개>

제 1장: 우선, 디자인의 세계적 흐름을 포착한다

제 2장: 유럽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제 3장: 새삼스럽지만,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이란?

제 4장: 의미를 바꾸는 전략 -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Design Driven Innovation)>

제 5장: <의미의 이노베이션>을 실천하려면

종 장: 디자인뿐만이 아닌, 비즈니스에 혁신을 일으키는 시도

<저자소개>

안자이 히로유키

(주)모바일 크루즈 대표. 이스즈 자동차 근무 후, 1990년부터 밀라노와 도쿄를 거점으로 삼아 비즈니스 플래너로서 수많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한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로컬리제이션 맵(현지화 지도, LOCALIZATION MAP)>을 고안하여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탈리아에서, 후쿠시마는.》, 《유럽의 눈, 일본의 눈》 등이 있으며 매주 Sankei Biz에 칼럼 <안자이 히로유키의 LOCALIZATION MAP>을 연재 중이다.

* <LOCALIZATION MAP> <http://www.localizationmap.com/>

야에가시 카자루

리츠메이칸대학 경영학부 교수, 리츠메이칸대학 디자인과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무사시노미술대학 조형학부 기초디자인학과를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학제정보학부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디자인사무소 근무, 무사시노미술대학 조교, 후쿠시마대학 전임강사, 리츠메이칸 조교수 등을 거쳐 현직을 맡고 있다. 2015년도 밀라노 공과대학 DIG(Dipartimento di Ingegneria Gestionale: 경영공학연구소)직원연구원이었으며, 전문분야는 디자인, 디자인 매니지먼트론이다. 저서 및 역서로는《Design by Management》(공저), 《Design Driven Innovation》(번역서) 등이 있다.

No.20170510-007

제목: 되고 싶은 내가 될 수 있는 분해 사고

저자: 코이데 마유미

페이지수: 19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07일



<내용소개>

5단계 '분해 사고'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꿈꾸던 나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34%에 달한다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1년 내 신입사원 퇴사율은 27%나 된다. 취직만 되면 우선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겨난다. 퇴사의 유혹은 근속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예상 업무와 너무 다르다, 조직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계속 다녀도 비전이 없을 것 같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처우가 형편없다 등등.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중요 포지션에서 밀려나는 일을 겪기도 한다.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기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안고 심리적인 방향을 계속한다. 따라서 본인이 '되고 싶은 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도 보일 것이다.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가까이 접하고 깊이 고찰해 온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나'를 탐색하는 과정을 도와주고자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핵심 키워드는 '분해 사고'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1장에서는 현재의 애로사항을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막연한 불안과 초조함을 파헤치는 것이다. 병명이 밝혀져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고민의 정체를 알아야 필요 이상의 공포를 없애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본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보유 경험, 스킬을 분해한다. 방향이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을 분석하듯 본인의 능력과 특징을 들여다보자. 자기애를 회복하면서 자신만의 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지금 나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고민의 주요 영역이 '일'이므로 일하는 방식과 커리어의 방향성을 주제로 삼는다. 4장에서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 바뀌나가야 할 것 등을 분해 및 정리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계획 세우기, 실천해야 할 행동 방식을 제안한다. 각 장 끝에는 경력 개발 이론 등을 칼럼 형식으로 소개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보충하였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자신, 내가 바라는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분해사고'를 5단계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분석하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삶에 가까워지는 핵심이 응축된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분해해보자

제 2장: 자기자신을 좋아해주자

제 3장: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당신

제 4장: 되고 싶은 내가 되자

제 5장: 내일을 바꿀 플랜과 액션

<저자소개>

코이데 마유미

'(주)일본 맨파워'에서 여성 대상 커리어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여성이 인생 과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의 중심 축을 만드는 것, 경력개발 지원 등이 주요 주제였다. 그와 더불어, 국가자격 커리어컨설팅 기능사 2 급, 자산 카운슬러,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어드바이저, 정신건강(Mental Health) 매니지먼트 검정 I 종 마스터 코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조직 내 커리어, 정신 건강, 워크 라이프 밸런스 실현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No.20170510-008

제목: 내일도 맑음

저자: 기무라 하루미

페이지수: 221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7년 03월 11일



<내용소개>

원숙한 필력을 지닌 에세이 작가가, 마음 속 구름을 걷어 줄 68편의 짧은 글을 선사한다

우리는 왜 타인이 쓴 에세이를 읽는 것일까? 대부분의 에세이는 저자의 사적인 영역이 많이 개입된다.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사회적 현상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다른 사람의 먹방을 보고, 운동이 하고 싶거나 경기장의 긴장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중계 방송을 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면 여행서적을 읽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 및 주변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살면서 따분하거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즉 '삶'에 대해 소소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이 생길 때 지극히 개인적인 에세이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비구름이 잔뜩 낀 마음에 햇별이 짹짹 내리쬐 수 있다. 연륜이 돋보이는 에세이 작가 '기무라 하루미'가 《내일도 맑음》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한국에는 낯선 이름이지만 일본에서는 에세이의 생생한 맛을 잘 살리는 작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황혼의 런던에서》로 오야 소이치 논픽션 상을 수상한 이후, 주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본 사회와 여성의 삶을 담은 글들을 발표해 왔다. 그녀의 필력과 감각은 80대의 나이에도 변함이 없다. 이번 신간에 수록된 68편의 짧은 글들은 10개의 작은 테마로 분류되어 있다. <일상 속 작은 행복>편에는 폭신한 양털 이불, 자기만의 단샤리(斷捨離, 미니멀 라이프), 멀게만 느껴지던 곳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에세이를 쓰는 기쁨, 책을 읽는 즐거움>편에서는 에세이 작가로서의 생활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해 나가야 하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한다. 혼자 구워 먹는 고기, 커피, 봄의 꽃놀이 등 음식에 관한 추억을 담은 <잊을 수 없는 맛>도 재미 있게 술술 읽어나갈 수 있다. 그 외에 새로운 일을 접하며 활력을 느꼈던 순간들, 혼란과 불안함, 일상 속에서 비 일상적인 것을 만나는 작은 여행 기술, 영국에서 지내던 시절의 에피소드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설렘던 해외여행과 가족에 대한 단상들이 경쾌하고 솔직하게 펼쳐진다.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생활과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소재들이 잘 섞여 있다. 때로

는 공감하고, 때로는 저자를 따라 도전을 해보고 싶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추진력'과 '삶의 지혜'를 선사하는 책이다.

<목차소개>

일상 속 작은 행복 / 에세이를 쓰는 기쁨, 책을 읽는 즐거움 / 잊을 수 없는 맛 / 조금, 설렘 / 나의 망설임 / 가루이자와의 산 속 오두막 / 비 일상적인 것과 만나는 작은 여행 / 영국의 추억 / 해외여행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설렘 / 14세에 죽은 상냥한 오빠

<저자소개>

기무라 하루미

교리츠여자대학 명예교수, 에세이 작가. 도쿄교육대학(현: 츠크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88년부터 교리츠여자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2003년에는 명예교수가 되었다. 1977년 《황혼의 런던에서》로 오야 소이치 논픽션 상을 받았으며 이후 에세이 작가로서도 활약해 왔다.

No.20170510-009

제목: <어차피 무리야>라고 생각하는 너에게

저자: 우에마쓰 쓰토무

페이지수: 175

장르: 청소년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18일



<내용소개>

‘로봇을 만들어 날리는 동네 공장장’ 우주개발의 꿈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의 조언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일이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도전을 하더라도 실패가 거듭되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용기를 얻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굳은 신념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에마쓰 쓰토무도 꿈을 향한 끈기와 노력이 빛나는 인물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우에마쓰 쓰토무.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와 로켓을 손수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유체역학을 전공하고 항공기 설계회사에 취직하면서 꿈을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갔다. 가업인 ‘우에마쓰 전기’를 물려받아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자체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리고 3,500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로켓 ‘가무이’를 개발해내는 쾌거를 이뤘다. 주변의 비웃음이나 우려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위해 곳곳하게 앞만 보고 달린 결과다. 직원 20인 정도의 소규모 공장장은 이제 NASA에서 주목 받는 인재가 되었다.

우에마쓰 쓰토무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려 한다.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더 배우려 하고, 작은 것부터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좌절을 겪으며 움츠러든 자기의 내면을 찬찬히 살펴보자. 여기저기 상처받고 흠집 난 자신감을 치료해주자. 아무 것도 아닌 평범함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괴로움은 빨리 흘러 버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부활시키고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과정은 곧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고, 타인의 반대나 공격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린다. 서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채워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진정한 동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꿈을 버리라며 타협을 강요당한다. 컬러풀한 일러스트와 함께 하는 빛나는 조언들이 암묵적인 압박에 지지 않도록, 꿈을 좇는 길과 해결책을 알려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당신은 자신감을 갖고 태어났다

제 1장: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제 2장: 엉망으로 상처받은 자신감을 수리하는 방법

제 3장: 진정한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

제 4장: 최고의 아군은, 바로 당신 본인

제 5장: 그런 친구 따위, 당신에게는 필요 없다

제 6장: 진짜 동료를 만드는 방법

<저자소개>

우에마쓰 쓰토무

196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현재 '(주)우에마쓰 전기'의 대표, '(주)가무이 스페이스 워크스'의 대표, NPO법인 홋카이도 우주과학기술창성센터(HASTIC)의 이사를 맡고 있다. 대학에서는 유체역학을 배웠으며 졸업 후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항공기 설계에 참여했다. '우에마쓰 전기'에서 배터리 식 마그넷 개발 외에 로봇개발, 우주공간과 같은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내는 미소중력 실험, 소형 인공위성 개발, 미국 민간우주개발기업과의 공동 사업 등을 진행하며 <사람의 가능성을 아아가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모델 로켓 교실을 개최하면서 연간 1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나사(NASA)보다 우주에 가까운 공장장》,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생각하면 가까워진다》등이 있다.

No.20170510-010

제목: 만약에 구멍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으로 이어질까?

저자: 기무라 유이치(글), 야마시타 코헤이(그림)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0년 07월



<내용소개>

땅을 계속 파내면 무엇이 나올까요? 지구과학분야의 궁금증을 해결해줍니다.

계획을 세우면 바로 행동에 나서는 활달한 형 '츠키',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는 누나 '키노', 호기심이 많은 막내 '노와'. 귀여운 곰돌이 삼남매가 땅 속 탐험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막내 노와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 보겠다며 무작정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파기의 달인인 두더지 '모그'의 도움을 받아 계속 내려가다 보니 너무 뜨거워져, 삼 남매는 도중에 방향을 틀어 온천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츠키와 키노, 노아는 지구의 안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지고 이용하는 땅은 표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 내부 정 중앙에는 딱딱한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용암 같은 아주 뜨거운 물질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계속 파내면 무엇이 나올까요? 일상 속에서 가질 법한 의문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스토리와 귀여운 일러스트가 흥미를 자극합니다. 책은 아래에서 위로 페이지를 넘기는 세로형태로 되어 있어, 지구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줄 유익한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기무라 유이치(글)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다마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조형교육 지도, TV유아프로그램의 구성작가 등을 거쳐 그림책 및 동화 작가로 전업하였다. 희곡과 코믹 원작, 소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집필 활동 중이다. 500권을 넘는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국내외에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다수의 롱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작 《폭풍우 치는 밤에》로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상,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JR상을 받았으며 《늑대의 왕》으로 일본 그림책 상을 받았다. 그 외 <아기 놀이 책>시리즈 등이 있다.

야마시타 코헤이(그림)

1971년생, 오사카예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하였다. 아트디렉터 및 디자이너로서, 그래픽·캐릭터를

중심으로 광고와 TV프로그램, 상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디자인 레이블 mountain mountain(R)을 통해 오리지널 상품 제작도 하고 있다. NHK교육 프로그램 《후시기 다이스키(ふしぎだいすき)》의 캐릭터 디자인 등을 비롯해, 그림책 작품으로는 《개구리와 땅강아지》 등, 크래프트 책 《종이 오려붙이기·모빌 BOOK》 등이 있다.